

# 방공포대 이전 언제? ... 광주시 “당장”·정부 “군공항과 함께”

### 광주시 “무등산 생태복원 시급...광주군공항에 이전한 뒤 무안으로” 정부 “조기 이전 땀 이전비용 이중 지출...군공항 이전 때 동시 진행”

광주군공항과 함께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시기를 두고 광주시와 정부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에 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후 광주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 이동식 방공포대를 광주군공항 내부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용역 예산(3억 4200만원)을 올해 2차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건의중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진행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전이 시작되더라도 이전 완료까지는 최소 10~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2030년 무등산 정상 완전개방을 협의의 중이었으나, 광주군공항 이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5년 12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였다.

지난 2023년 광주시는 국방부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는 총 158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조기 이전부지로 현재 광주군공항을 보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방공포대를 이전한 뒤 추후

무안으로 이전시 한꺼번에 재이전을 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무등산 정상부에 설치돼 있는 방공포대의 미사일 체계가 노후화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이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을 위한 생활 시설등의 인프라 조성까지는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무등산 정상부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이전으로 세계적 지질 유산인 무등산 복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지출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군공항이 실제 이전할 때 방공포대가 한꺼번에 옮겨가면 이전 비용이 한 차례만 지출되지만, 조기 이전시에는 이전비용이 중복집행된다는 논리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무등산 방공 포대 조기 이전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연구원 연구 결과 무등산 완전 개방을 원하는 시민이 63.35%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군부대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부 완전 개방시 3006여여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고 빠른 복원을 위해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의 조기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관계자는 “곧 진행될 정부 올해 2차 추경안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세계적 유산인 무등산 정상부의 빠른 복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주식·금융시장 정상화로 부동산에 대한 자금 풀림 막을 것”

###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 되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돈이 주식과 금융 시장으로 분산되면 부동산에 대한 집중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주권에 대한 국정 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국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임을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마와 관련해서는 “장마 대비나 폭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면서 철저한 관심을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내 국가산단 입주 포화상태...추가 지정 필요

### 타운홀 미팅 대통령 발언 오해 우려 전남 동부권은 산단 용지 부족 순천·광양 일원에 부지 조성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진행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전남에 필요한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을 듣고 “기업 유치에 제일 중요한데 개발 허가 내주고 산단 몰랑 내주고 기반 시설 갖추면 기업이 줄서서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 내 국가산단은 포화상태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산단 분양시 정부가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등

의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면 기업 유치가 쉽고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과 산단의 노후화를 감안해 국가산단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제2차)와 광양산단, 대불산단, 여수 석유비지기지(저장창고), 함평빛그린산단 등 전남도 내 5개의 국가산단의 분양률은 99.9%인 것으로 집계됐다. 5개 단지에는 962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가동률은 85.7%(825개)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산단이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전남 동부권의 경우에는 산단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총 396만㎡ 규모,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나섰다. 최근 자체 용역 결과 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산단이 조성될 경우 입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기업만 120여곳에

달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에 나선 것도 동부권의 고질적인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나주에너지국가산단과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받고 있다. 나주에너지국가산단의 경우 오는 3일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경우 국토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들 산업단지 외에도 추가적인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부권의 경우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우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놓고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기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여수산단이 1967년 조성되는 등 국가산단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